

# 은행 돈 빌리기... 개인사업자엔 ‘그림의 떡’

### 금융권 고신용·담보 대출만 선호... 문턱 여전히 높아 돈 줄 막혀 폐업위기... “급한 불 끄자” 사채 쓰기도

3년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빵집을 낸 김모(45)씨는 최근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은행에 대출하려갔다 실망감만 가지고 돌아와야 했다. 은행 측은 사실상 담보 없이는 대출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씨는 운영자금이 급해 사정도 해봤지만 은행의 완고한 입장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이 돈줄이 막히면서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막상 돈을 쥐고 있는 은행권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권이 담보가 확실하고 연체 위험이 낮은 사업자 중심으로만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전보다 신용대출을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사업자들의 중론이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소득금액과 신용등급이 좋다면 1금융권 신용대출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자격에 적합한 금융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1금융권에 비해 대출문턱이 낮은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지역 일부 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

으며, 거래가 이뤄진다 해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퇴짜를 놓기 일쑤다. 각 은행들은 신용대출 회수의 위험성이 큰 만큼 소득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주로 현재 살고 있는 집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비중이 높다”며 “담보가 없거나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장 운영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들은 사채까지 끌어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가 비싸더라도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건박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충장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박모(49)씨는 “매출 하락은 곧바로 자금난으

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존 부채는 당연히 늘었고, 임대료도 못 내는 현실이다 보니 업종전환을 하든지 가게를 접든지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지역 한 자영업자는 “평소 수익이 많고 영업도 잘되면 누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느냐”며 “은행들이 장사가 잘되는 곳에는 대출을 권유하면서, 막상 돈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는 매물처에 대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원화 대출 잔액(잠정치)은 656조4000억 원이고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체 기업 대출의 약 30%인 198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58.93 (-2.24)	▼ 금리 2.20%(-0.01)
▼ 코스닥 557.86 (-3.17)	▲ 환율 1055.50원(+8.20)

## 광주 근로자 평균 월 급여 249만원

### 광역시중 5위... 전남 278만원

광주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6위를 차지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을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 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는 전년 동월보다 3.1% 상승한 249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6대 광역시로 따지면 대구(235만2000원)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전남은 278만원으로 전국평균인 283만8000원에 조금 못미쳤다. 전국 평균보다

월급여가 높은 지역은 서울(320만원)과 울산(295만2000원) 두 곳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종사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자치시(10.8%), 강원(2.0%), 전남(1.9%) 순이었다. 전남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기관 이전이 시작되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노동이동은 광주(입직률 5.1%, 이직률 5.5%)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광주는 건설업 종사자가 많은데, 건설업 종사자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광주·전남 중기 2곳 중 1곳 “4분기 신규 채용 하겠다”

### 업체당 평균 3.9명 계획

광주·전남 중소기업 2곳 가운데 1곳은 올 4분기 신규채용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은 ‘인력부족현상’을 호소해 고용 ‘미스매칭’도 여전히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내놓은 ‘2014년 중소기업 인력채용전망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138개(광주시 70개·전남도 6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2%가 4분기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으며 1개 업체당 평균 3.9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인력채용 이유는 ‘자연감소 인원충원’(66.7%), ‘현재인원의 절대적 부족’(42.

7%), ‘우수인력확보’(18.7%) 순으로 집계돼 신규투자에 따른 인력채용이 아닌 부족인력 보충을 위한 채용으로 조사됐다.

중소제조업체의 구인난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의 48.6%는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인력 부족 직종은 단순근로자 43.7%, 기능직 23.9%, 기술직 19.7% 등으로 대부분 ‘생산직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조사업체의 76.5%는 ‘인력채용이 어렵다’고 답해 중소기업은 ‘구직난 속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채용이 힘든 이유는 ‘적합한 경력자나 적임자가 없음’(58.3%)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38.8%), ‘회사소재지의 지역여건’(27.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감기 예방에 좋은 홍시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3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고객이 잘 익은 홍시(고동시)를 살펴보고 있다. 홍시는 당도가 높고 면역체계에 좋아 감기예방 효과가 탁월하다. 1박스에 2만5000원에 판매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쌀 변동직불금 4년만에 1400억 지급될 듯

올해 산지 쌀값 하락으로 201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1400억원대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농가에 지급될 전망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올해 수확기(10~12월)의 햅쌀 한 가마니(80kg) 평균 가격을 16만7600원으로 가정해 환산한 변동직불금이 1400억원대로 추산됐다.

이는 쌀 풍작으로 최근 산지 쌀값이 16만원 중반까지 하락하는 등 2012년 10월 이후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1월) 평균 쌀값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인 80kg당 18만8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올해 예산은 3153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변동직불금은 2005년산 9007억원, 2006년산 4371억원, 2007년산 2791억원, 2008년산 0원, 2009년산 5945억원, 2010년산에 7501억원 지급돼 왔으나 산지 쌀값이 올랐던 2011~2013년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광주에 특화된 미래 직업군 창출 필요”

### 광주상의, 고용포럼 대토론회

“광주에 어울리는 미래 직업군 창출과 유망직업 선정 및 육성이 절실합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30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개최한 ‘제44차 광주고용포럼 대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소라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교수는 “그동안 일자리 정책이 고용미스매칭 해소나 일자리 알선에 머물렀다면 이제 광주에 특화된 산업관련 연관교육과 인력 부족률이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며 “기업 유치를 바탕

으로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일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원장은 “광주 서구의 자원조사를 분석해 보니, 관광 인프라와 제조업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일자리창출이 쉽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며 “광주시의 중심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유통·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는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고,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관광 연계형 일자리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중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원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원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봉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원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축사사거리) 2층 23억(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도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옥,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해남군 대흥사부근 민박집 3.8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 “땅” 급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 공장부지 “땅” 급매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6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용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